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iR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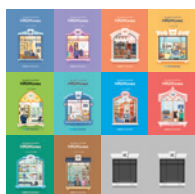
2023 October vol. 328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발행인 김영중
편집인 윤명섭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미디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우선정
글 박소현
전화 051.636.1210



Cover Story

색색의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2023 HRD Korea 10월호에는
 숙련기술인이 오랜 시간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가치의 진중하고 수려한 색감을
 담았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
 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HRD)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
 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빛고

h

04 능력을 빛는 사람들

고려청자, 천년의 시간을 잇다
 _ 박병호 대한민국 명장(공예직종)

08 NCS 돌보기

도자공예 직무분석

10 HRD Focus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다
 _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4 업그레이드 HRD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기술로 #쌓아

R

16 HRDK 인포그래픽

전국기능경기대회

20 HRDK 이야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충북 인적자원개발의 청병
 _ 공단 충북지사

24 미래를 짓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수상작

26 상생스토리

숲에서 배우다, 숲으로 치유하다
 _ (주)숲담다

#한 단계 #성장하며

D

30 함께 한 걸음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사색

34 세대공감 비즈니스

MZ세대의 놀이터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36 뜨는 키워드, 뜨는 직up

사물을 넘어 변화를 찍어내다, 4D 프린팅

#이어지는 #HRDK

K

40 읽어주는 직방

성공을 위한 기록법

42 HRD 뉴스

44 독자이야기

고려청자, 천년의 시간을 잇다



박병호 대한민국 명장(공예직종)

흙과 물과 불로 빚어낸 고아한 자태. 은은한 옥빛과 유려한 선을 품은 고려청자의 기품은 직접 마주해야 오롯이 전해진다. 청자와 함께한 지 37년, 박병호 대한민국 명장은 이제 ‘어떻게 빚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한다. 천년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고려청자를 빚을 수 있도록, 맥을 잇는 일을 사명으로 삼았다. 명장이기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갑작스러운 시련, 도예의 길로 이끌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다. 대학 4학년, 교사를 꿈꾸며 교생실습을 준비하던 공학도에게 갑자기 찾아온 돌발성난청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좌절 대신 도전을 택하고 찾은 곳은 경기도 이천. 박병호 명장이 도예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이다.

“귀가 안 들려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공고에 공대 출신이라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었고, 평소 도자기에도 관심이 높았거든요. 그렇게 스물여섯에 효천요에 취직했습니다. 뭘 모르니까 용감할 수 있었어요.”

1987년 당시 도자기공장은 도자 성형, 그림, 조각, 유약 만들기, 소성 등 철저한 분업으로 돌아갔다. 초보인 그는 당연히 흙을 만져볼 일이 없었다. 유약을 입히고, 가마에 기물을 넣어 불을 조절하는 가마 소성이 그의 임무. 감사한 일터였지만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물레를 배울 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이어서 취직한 부림요도 청자를 만드는 곳이었던 건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미술을 전공한 대표님이 옛 묘지에서 나온 청자 파편을 보여줬어요. 청자에 완전히 홀리는 순간이었죠. 또 제가 공부한 기계·전자도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창작품이거든요. 손으로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즐거움이 서로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차 도예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죠.”

청각장애도 도예가에는 물입이라는 장점으로 이어졌다. 도시락을 두 개씩 챙겨 밤늦도록 혼자 남아 기술을 연마한 그는 결국 5년 만에 자신만의 작업장 ‘서광요’를 열었다. 가마도 없는 널찍한 공간뿐이었지만 박병호 명장은 아직도 그 설렘을 잊지 못한다.



세계를 매료시킨 선을 입은 청자

첫 1년은 고전했지만 곧 이천 도자기의 호황기와 맞물려 주문이 밀려들었다. 도자기를 만들고 굽기를 반복하는 동안 박병호 명장은 문득 현장에서 익힌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갈증이 물려왔다.

“이론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마침 명지대 대학원에 도자기기술학과가 개설되어 입학했는데 정말 눈이 뜨이더라고요. 흙의 원리를 파고들어 우리 고유의 청자색을 내면서 1,280℃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강도 높은 흙과 유약을 개발했습니다. 균열 없는 고강도의 청자 생활자기를 생산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연구였죠.”
전통 자기에 ‘박병호’만의 결을 입히는 데도 몰두했다. 고려 시대의 청자가 현대에도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그는 나뭇의 선을 입히기 시작했다. 익히 잘 아는 설계 도면 속 균형미가 떠오른 것이다.

“도면도 선으로 표현한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특히 작업자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복잡해 보여도 질서와 균

형이 중요합니다. 미술을 공부하지 않아 더 과감하게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고풍스러운 청자와 절제된 선의 조화는 현대적 감각으로 거듭났다. 그 진가는 곧 세계와 통했다. 2006년, 세계적 경매소인 영국 런던 본함스 경매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출품한 작품이 모두 판매된 것이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개인적인 서사가 담긴 박병호 명장의 청자는 그렇게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박물관 안의 고려청자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청자를 고민한다. 전통 고려청자 기법은 고집스레 이어가되 지금 이 시대의 감각을 새겨 넣는 게 전통을 잇는 명장이자 예술가의 사명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천년의 숨결 잇는 명장의 사명

이천에 터를 잡고 묵묵히 청자를 빚어온 박병호 명장은 올해 8월, 2023년도 대한민국 명장(공예직종)에 선정됐다. 청각장애로 쉬이 자리를 찾지 못하던 그를 효

천요에서 처음 받아쥘 때의 두근거림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지난 37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울컥했어요. 장애가 있다고 동료들이 더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줬거든요. 견제하거나 귀찮아할 수 있는데 손을 끌고 가서 하나라도 더 알려줬어요. 명장에 오르기까지 도움 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께 고마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미약하게 소리가 들리고,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지만 장애는 장애였다. 그런 그를 누구 하나 내치지 않고 보듬고 도와준 고마움을 잘 알기에 2004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도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천 관내 초등학교를 돌며 도예 특강을 펼쳤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 기능인 선배로서 조언을 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기능인은 결국 습관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어렵지만 제대로 익혀두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고비를 이기고 과정을 밟아가면 독보적인 기능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후배나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선생님 찰옥 만드는 거 재미있어요’라고 쓴 비뚤비뚤한 초등학교생의 편지를 핸드폰에 소중히 담아둔 박병호 명장.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 어느덧 선생님의 꿈도 이뤘다고 환하게 웃어 보인다. 사실 그는 고려청자를 빚는 마지막 세대가 자 막내다. 자칫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더 빼어난 작품을 만드는 일이 아닌 청자의 대를 이을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천년을 이어온 유산인데 후대에 잘 전해야죠. 고려청자는 누구나 잘 알지만 상감기법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어요. 일단 초등학교 대상의 학년별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흥미를 높이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보급 도자기가 전시된 일본 동양도자미술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서 선배 명장님들과 워크숍을 겸한 순회 전시를 열고 싶습니다.”

도자 교육에서 소외된 곳이나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박병호 명장. 그는 우리 도자기와 고려청자가 일상에서 가까이 살아 숨쉬기를 꿈꾸며 새로운 길을 그려간다. 그 관심이 고려청자의 맥을 잇는 시작일 테니 말이다.



도자공예
직무분석

장인정신으로 품격을 빛어내다

도자공예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소지를 원하는 형태로 성형, 장식, 건조, 유약을 시유하고 가마에서 소성하여 실용적이고 심미성 있는 도자공예품을 만드는 일이다. 도자공예 직무에 대해 알아보자.

도자공예 NCS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수준
1	도자제품 방향설정	2
2	도자제품기획	4
3	도자소지조합	2
4	손성형	2
5	도자건조	2
6	도자장식	2
7	도자제품관리	4
8	도자작업 안전관리	2
9	석고제형	3
10	이장주입성형	2
11	제형물레	3
12	물레성형	2
13	물레정형	2
14	유약제조	3
15	시유	3
16	가마재임	2
17	소성	3





출처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NCS 및 학습모듈 검색

22.인쇄·목재·가구·공예 > 02.공예
> 01.공예 > 02.도자공예

물레성형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도자공예 능력단위 가운데 물레성형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이에 필요한 능력단위요소 중 ‘물레성형하기’에 대한 수행준거와 KSA(지식·기술·태도)다.

분류번호 2202010216_17v4 능력단위 명칭 물레성형	
정의	물레성형은 기물의 형태에 알맞은 물레를 이용하여 기물을 성형하는 능력 이다.
요소	2202010216_17v4.3 물레성형하기
수행 준거	<p>3.1 성형에 필요한 적당량의 소지를 물레회전판에 놓고 중심잡기를 할 수 있다.</p> <p>3.2 중심잡기를 통하여 원통형으로 형태를 만들고 점토 중심을 찾아 낼 수 있다.</p> <p>3.3 물레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U자 혹은 V자형의 형태의 구멍을 만들 수 있다.</p> <p>3.4 기벽을 밀어내거나 오므려 원하는 형태를 성형할 수 있다.</p> <p>3.5 완성된 형태의 밑 부분을 도구를 이용하여 굽자리를 만들고 절단할 수 있다.</p> <p>3.6 성형된 기물을 건조판에 이동하여 변형 없이 건조할 수 있다.</p> <p>3.7 성형된 기물에 맞는 굽통을 제작할 수 있다.</p>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판독 * 물레성형 사용도구 이해지식 * 물레사용법 * 기물 용도와 형태에 따른 굽 형태의 이해지식 * 성형목적에 따른 소지선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레 조작능력 * 중심잡기 * 성형 단계별 속도 조절 * 동일한 기물 제작능력 * 성형과정별 적절한 도구사용 기술 * 물레 회전판에서 기물의 변형 없는 분리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레 사용 시 안전사항 준수 * 도면과 일치하도록 성형하려는 의지 * 성형 후 물레 주변의 청결유지 * 물레작업을 위한 복장준수 * 사용한 도구 정리정돈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꿈꾸다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과,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자 하는 회사의 균형은 경제발전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인천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전통적인 제조산업에 더한 첨단산업의 부흥으로 새로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인천의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보았다.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통 뿌리산업에서 첨단사업으로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천인자위)는 2013년 인천상공회의소 내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팀을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출범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은 15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제조업 기반 도시다. 하지만 인프라는 점차 노후하고, 기술적 혁신에 뒤처지며 안전 문제와 트렌드 대응의 부재 등 여러 요인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인자위 인력양성팀 박세호 팀장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천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력양성팀 박세호 팀장



“현재 영세한 기계 분야의 제조업이 약세를 보이는 반면, 대기업 주도의 화학·바이오·정밀기계 제작 등의 제조업 분야가 새롭게 지역산업 부가가치를 유지 및 상승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이 지역사회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차 부품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활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지요.”

공항·항만을 보유한 수도권 물류산업 중심지로서 여객과 화물 수송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인력수요 또한 상승한다는 특징도 있다. 박세호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인천인자위의 역할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인천인자위는 지역 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이 계속하여 거론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모색·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모든 일에 나서다

인천인자위는 크게 인력양성팀과 일자리창출팀의 2개 팀으로 운영되는데, 인력양성팀의 경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사업, 기업훈련지원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우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팀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된 활동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위), 일자리창출팀(아래)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팀의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22년 인천인자위가 고용부 신규사업으로 수임한 것으로 신기술·신사업에 포커스를 맞춰 지역마다 존재하는 산업구조의 특색에 맞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훈련지원팀은 일학습병행 확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었지만 해당 사업이 안착되면서 올해부터는 고용부 직업능력훈련사업 전반을 확산하는 역할로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고용부 훈련사업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팀이라 할 수 있겠다.

일자리창출팀은 전국 인자위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팀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이 핵심인 곳이다. 지역혁신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산업의 모든 길이 인자위로 통하는 그날까지

총 18명(겸임자 포함)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인천인자위의 업무는 엄중한 만큼 어려운 면도 많다. 거버넌스 참여 주체 모두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가 쉽지 않고, 훈련과정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의 적시성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데다, 훈련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에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인자위 직원들은 높은 자부심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가고 있었다.

“저희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들이 인자위의 권한과 역할에 든든히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처럼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 인정받는다는 점이 큰 성취감으로 돌아오며, 또 언제나 국장님께서 묵묵히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김민경 팀장의 말처럼 상명 하달이 아닌 수평적 업무구조, 팀 간의 활발한 소통 등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전국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로서 표창을 2회 수상했고, 우수한 조직관리에 대한 장관표창과 개인 장관표창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표창 1건 등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 조직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천인자위는 외부 행사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천인자위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2023 인천 일자리 한마당’에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몰려 즉석 면접과 현장 취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최근 9월에는 ‘2023년 물류산업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박세호 팀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회상했다.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당시 평일이었음에도 많은 지역 대학생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중 우연히 학생들이 ‘너무 재밌고, 이런 행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라며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간의 피로가 모두 날아갈 정도로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전 지역의 화두이며 숙제다.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뛰며 구직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인천인자위 사람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그려갈 인천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인자위팀 김민경 팀장

MINI INTERVIEW



인천 일자리 산업의 허브로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

조세열 사무국장

인자위는 지역의 일자리 관련 핵심 사업을 논하는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장기 목표로 저희 인천인자위는 ‘인천 일자리 산업의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 고용거버넌스 전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뿌리산업과 반도체·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의 바탕이 되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역 산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분들 역시 자구적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천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더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수 있는 신기술관, 실무자 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라운지·엠베서더 라운지, HR 솔루션 상담을 위한 기업 부스등으로 구성된 EXPO까지 다채롭게 마련됐다. 9월 25일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에서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AI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며 공단이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연은 더 알차게, 소통은 더 가까이

‘AI 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은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가장 먼저 1일 차 기조강연으로는 뇌과학 권위자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인류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2일 차에는 국내 최고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와 계산공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일본계산과학학회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김운영 석좌교수가 ‘AI 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AI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재상에 대해 논했다. 같은 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컨퍼런스 클로징 기조강연도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해당 강연은 AI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변호 사례를 확인하면서 다시금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다.

올해 컨퍼런스는 포럼이나 대담 형태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HRD클리닉 상담소, 신기술관, 각종 체험 및 이벤트 존을 다양하게 마련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기존 주입방식의 강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의 프로그램과 참가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 깊었던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직업능력의 달을 풍성하게 물들인 이번 행사는 그야말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무르익게 해줄 유익한 시간이었다. 급변하는 산업과 경영환경 속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지금,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찾은 HRDer들이 또 한 걸음 성장했기를 희망해본다.

기술로 쌓는 영예와 자부심

숙련기술 대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




숙련기술인의 땀과 열정을 드높이는 뜻깊은 자리!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저변 확산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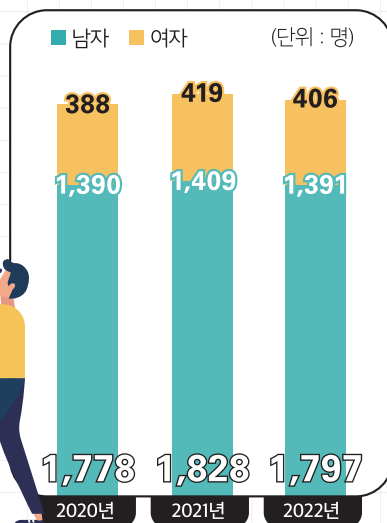
[연도별 개최지 및 경기직종 수]

년도	회수, 개최지	참가시도	실시직종
2020년	제55회 전북	17개	50개
2021년	제56회 대전	17개	53개
2022년	제57회 경남	17개	53개
2023년(개최예정)	제58회 충남	17개	50개

[입상자 및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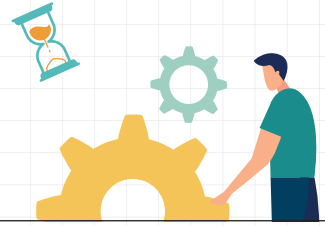
	52명	73명	71명
	97명	121명	111명
	142명	125명	135명
입상자 총계	291명	319명	317명
우수상	127명	105명	103명
장려상	387명	439명	432명
	2020년	2021년	2022년

[참가선수]



숙련기술의 미래를 이끄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를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기능경기대회로서 저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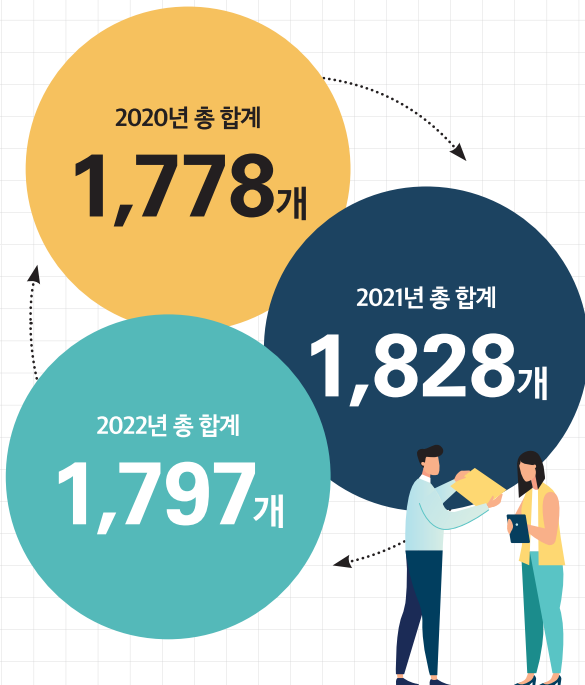
2022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살펴보기

[전국기능경기대회 시·도별 참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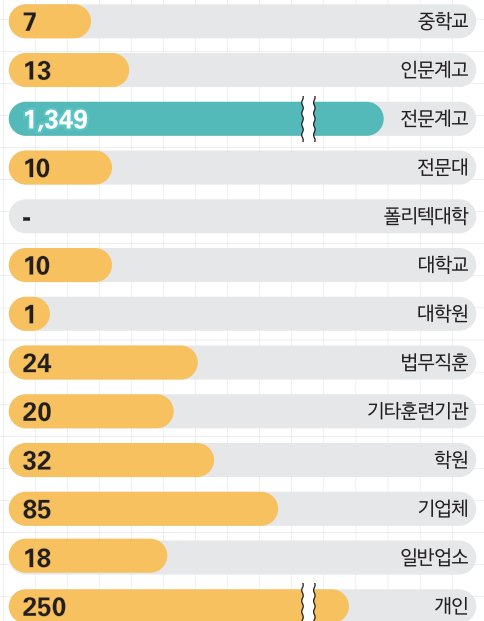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7	6.8	8.3	5.2	5.8	5.6	3.5	1.1	8.9	4.3	5.7	6.6	4.8	6.0	8.1	7.3	3.3

[전국기능경기대회 소속유형별 참가]



[2022년 소속유형별 참가]

(단위 : 개)



2023년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0. 14.(토)~10. 20.(금)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대회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을 비롯한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정보 및 안내



백제의 숨결 속, 당신의 기술

충분히 남다르다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충청남도에서 개최됩니다. 17개 시도 선수 및 대회 관계자를 비롯, 시민과 선수 가족 등 13,000여 명이 참여해 그야말로 숙련기술 대축제가 될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올가을,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상호 기술을 교류하는 뜻깊은 대회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회기간 및 경기 안내

대회기간	2023년 10월 14일(토) ~ 10월 20일(금) / 7일간
개최지	충청남도 일원(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보령시)
주최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주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경기장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 등 6개 경기장
경기직종	폴리메카닉스 등 50직종
참가인원	선수(1,691여명), 기술위원(800여명) 등
주요행사	개회식, 기술위원회의, 주요인사참관, 시상식, 폐회식

총 6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질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

제1경기장 천안공업고등학교 CNC밀링 등 9개 직종	제2경기장 천안상업고등학교 게임개발 등 6개 직종	제3경기장 천안제일고등학교 농업기계정비 등 5개 직종
제4경기장 아산스마트팩토리 마이스터고등학교 금형 등 5개 직종	제5경기장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메카트로닉스 등 6개 직종	제6경기장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 자동차정비 등 19개 직종

7개 분과
50개 직종,
각 분야
최고의 기술을
겨루다!



분과	직종	직종별
기계	8	CNC/밀링, CNC/선반, 기계설계/CAD, 냉동기술, 금형, 폴리메카닉스, 산업용드론제어, 프로토타입모델링
금속·수송	8	용접, 배관, 농업기계정비, 판금철골구조물, 주조, 자동차정비, 자동차페인팅, 자동차차체수리
전기·전자	8	전기기기, 전기제어, 통신망분배기술, 산업제어, 산업용로봇, 메카트로닉스, 공업전자기기, 모바일로보틱스
건축·목재	5	건축설계/CAD, 타일, 가구, 실내장식, 목공
IT·디자인	9	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제품디자인, 웹디자인 및 개발, 정보기술, 그래픽디자인, 사이버보안, IT네트워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공예·의류	6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한복, 의상디자인, 도자기, 목공예
미예	6	화훼장식, 헤어디자인, 요리, 제과, 제빵, 피부미용

대회 일정 미리보기

-
행사 및 경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	내용	장소
1일차 10. 14.(토)	• 기술위원회 회의 및 환영리셉션 • 경기장 준비	스플라스리움(예산) 각 경기장
2일차 10. 15.(일)	• 경기장 준비 및 직종별 과제수정 • 제1일차 경기	각 경기장
3일차 10. 16.(월)	• 개회식, 주요인사 경기 참관 • 제2일차 경기 및 심사 • 부대 행사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천안제일고 각 경기장
4일차 10. 17.(화)	• 제3일차 경기 및 심사 • 부대 행사	각 경기장
5일차 10. 18.(수)	• 제4일차 경기 및 심사 • 부대 행사	각 경기장
6일차 10. 19.(목)	• 제5일차 경기 및 심사 • 심사 및 채점 완료	각 경기장
7일차 10. 20.(금)	• 심사 및 채점 완료(일부직종) • 지역문화 체험(폐회식 수상자) • 나눔과 다짐 한마당(폐회식)	각 경기장 충남위 주관 보령문화 예술회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충북 인적자원개발의 첨병

공단 충북지사는 오랜 시간 내공을 쌓으며 그들만의 경험치를 축적하고, 정체성을 빚어온 곳이다. 청주시를 비롯한 1개 시 6개 군 대상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충북지사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곳

공단 충북지사는 1979년 한국기술검정공단 청주사무소로 출발했다. 1998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방사무소로 변칭했고, 2006년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오다가, 2023년 충북북부지사가 신규 개소하게 되면서 지금은 충주, 제천, 음성, 단양을 제외한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충북지사에는 천윤수 지사장을 필



두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비롯한 외국인고용 지원·숙련기술 장려사업 등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과 공단 훈련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재혁신부, 자격검정사업을 담당하는 자격시험부의 3개 부서가 각기 담당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서로 협업하는 중이다.

한편 공단 지사에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역시 필수적 역량인데, 충북지사의 경우 그 방면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기업인재혁신부의 이태훈 부장은 “학업부터 취업, 취업 이후의 지원 등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밀접한 협력관계와

균형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격증 찾아주기, 열정 찾아주기

충북지사가 운영하는 독특한 사업 중 하나로 ‘자격증 찾아주기’ 캠페인이 있다. 이 사업은 천윤수 지사장의 우연한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자신이 오래전 국가자격증 6개를 취득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문득 자격증 찾아주기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상단부터) 공단 충북지사
기업인재혁신부, 직업능력개발부, 자격시험부



‘올패스(OLPASS)’ 캠페인은 그렇게 시작됐다. 오래된 자격증을 재발급해 줌으로써 자격증 소지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비 자격자의 자격증 취득 의욕을 고취하는 이 사업은 현재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하이텍고등학교 등 4개 특성화고 교장에게 자격증 수여를 마쳤으며 지난 8월 17일에 열린 충북공고 교장 수여식 행사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까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실무 담당자인 자격시험부의 박순희 차장 역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자격증을 액자에 담아드리면, 모두 책상 위에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지난 시절의 열정과 배움에 대한 의지까지 고스란히 되살림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이를 보게 되는 이들과 국가자격증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정과 도전 의식으로 더 나은 산업 생태계를 꿈꾸며

충북북부지사가 설립되며 이뤄진 인사이동과 업무 조정 등으로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인 충북지사였지만, 훈훈하고 활기찬 분위기만큼은 변함없다고 한다. 직업능력개발부 김시연 과장에게 지사 자랑을 부탁했다.

“보시다시피 충북지사는 전체 부서가 1층에 모두 모여있어요. 그래서 유독 가족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코로나19로 선택적 재택근무가 이뤄질 때도 자격시험부는 업무 특성상 재택이 어려우니 다른 부서에서도 ‘그냥 모두 같이 일하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죠.”

이런 충북지사 구성원들의 따스한 정은 밖으로도 퍼져갔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도배·장판 교체 봉사활동

동, 폭우 피해를 입은 지원 사업장에 대한 수해복구 활동 등 지역사회를 향한 '진심'을 아낌없이 표하는 그들이었다.

충북지역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해 갈 첨단 산업의 집합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북 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기존의 업무는 물론 그밖에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늘 뜨겁게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충북지사 직원들. 이들의 노력이 모여 많은 물줄기를 만든다면 충북지역에 거대한 희망의 바다가 생겨나지 않을까. 바로 지금, 그 활기찬 움직임에 힘찬 응원이 필요한 때다.

충북지사
천윤수 지사장

충북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Q. 충북지역 산업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충북지역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패스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국 3위의 반도체 생산 규모를 자랑하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전국 유일의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BBC(Bio, Battery, Chip)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충북지사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앞으로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과 숙련기술 사업의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맞춤형훈련 홍보를 위해 10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참여해 충북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시 시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국가자격시험장 구축 준비를 잘 마무리하고, 수험자용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사 분위기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 나름의 노력에 잘 따라주며 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사의 궁극적 역할은 결국 '양질의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내가 살던 고향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장려상 수상작

스페인, 가슴이 이끄는 곳



대학 입학 후 떠난 세계 여행과 스페인 교환학생 생활은 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해주었다. 전 세계의 18개국을 홀로 여행하며 나는 스스로 더 배우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도시, 스페인에서 일하고 싶어졌다. 해외 취업은 그때부터 내 목표가 됐다.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

졸업과 동시에 해외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 나는 플랜B로 국내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뒤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거나 이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취업의 문턱은 높았다. 몇 차례 불합격 통보를 받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중 인턴십을 했던 한 스타트업의 대표님께 입사 제안을 받았다. 고려하던 산업군과 직무는 아니었지만, 관심 있던 디지털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에 입사를 결심했다. 그러나 입사 후에도 나는 꾸준히 해외 취업을 준비했다.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 헬스장을 가고, 퇴근을 한 뒤엔 집에서 이직 준비와 어학 공부를 병행하는 생활을 6개월간 이어가며 점차 지쳐갔다. 결정적으로 정말 원했던 기업 두 곳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번아웃과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는 결국 퇴사를 하고 스페인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했다.

그런데, 비자를 받자마자 내게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지원해도 답장조차 없던 스페인 회사들이었다. 그런데 퇴사 신청을 하자마자 링크드인에서 콜드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한 다국적 기업 바르셀로나 지사의 세일즈 매니저였다. 디지털 마케팅





팅 컨설턴트를 채용 중인데, 나의 경력 및 경험과 매치가 될 것 같으니 관심이 있다면 CV(Curriculum Vitae)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 후 서류와 면접 합격까지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동안의 노력과 눈물, 그리고 절실한 바람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스페인과 나는 정말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인 브랜드 마케터의 꿈을 향하여

나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구글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럽 내 'Google Ads 및 구글 마케팅 툴'을 세일즈 및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업체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 지사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다. 나는 사내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입사 초반 익숙하지 않은 영국식 영어와 사투리를 쓰는 고객과의 소통에 고충을 겪기도 했고, 처음 다뤄보는 Google Ads를 모국어 아닌 영어로 배우려니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했다.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며 나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해 발표하기도 하

고, 신입사원들의 트레이닝 시험 통과를 위해 코칭도 했다. 해외 기업에서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매니저 및 팀원들, 나아가 타 팀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리고 벌써 입사 1년 차가 다 되어가는 지금, 나는 팀 매니저에게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미팅 주도력 및 마케팅 퍼포먼스 성과 분석력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다. 또한 감사하게도 그렇게 받기 어렵다는 '스페인 노동 비자' 스폰서십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에서 계속하여 꿈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된 나는 앞으로 브랜드 마케터라는 목표를 이뤄보고 싶다.

만약 여러분도 나처럼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다면,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봤으면 한다. 간절함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만나면 분명 언젠가는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리라고 믿는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전합니다. 자세한 수기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에서 확인하세요!

숲에서 배우다, 숲으로 치유하다

(주)숲담다

울산에는 치유와 배움의 터전인 숲을 사람과 연결해 주는 특별한 기업이 있다. 숲에 꿈과 희망을 담고, 숲을 닦아간다는 뜻의 이름을 딴 ‘숲담다’가 바로 그곳이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반가운 가을의 초입, 울산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서 숲담다의 남승욱 대표를 만났다.

어떻게 숲담다를 설립하게 되셨나요?

숲담다를 설립하기 전 저는 10여 년간 유아교육 사업에 몸담고 있었어요. 당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파견을 주요 업무로 했으나 한편으로는 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적으로 생태교육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생겨났는데, 저 역시 자연과 숲을 주제로 한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창업을 결심하게 됐죠. 그렇게 2019년 숲담다를 설립하고,



2020년 1월 해설업·유아숲교육업 유형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전문업 등록에 이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숲담다는 어떤 기업인가요?

숲에선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바이오�필리아(Biophilia) 학설에 따르면 사람에게서는 자연에 대한 애착 그리고 회귀 본능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숲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러한 본능이 이끄는 곳으로 돌아가 활동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숲담다는 그런 숲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업이에요. 숲체험과 산림교육,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대인들이 숲을 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 중이죠. 다만 대부분의 사업을 산림청과 지자체 위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개인 또는 개별 기관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

#상생스토리

매월 상생스토리에서는 공단과 PRESG 업무 협약을 맺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주)숲담다

대표자 남승옥

사업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치유업, 유아숲교육업, 숲해설업),
강사파견(환경교육, 정원교육), 교재교구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92

문의 052-242-0806



하기도 하고, 산림교육 관련 교구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숲담다에는 오감 테라피, 자연탐구활동, 케어패밀리, 계절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등 숲을 무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숲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숲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성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거든요. 숲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도모하며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곳 편백산림욕장이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특히 좋은 곳이지요. 숲담다가 운영 중인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도 되지만, 기업 또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색다른 구성이 있다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드리기도 합니다.

환경교육을 위한 교구도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에 관련된 놀이와 교구부터 그밖에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환경에도, 우리 숲담다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개발 제품으로는 ‘탄소품은고래’라는 이름의 환경 교구가 있습니다.

고래 한 마리는 평생 33톤의 탄소를 포집한 채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그 탄소를 수백 년 동안 가둬둔다고 하지요. 즉 고래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생물이에요. 이런 고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씨글라스(바다유리) 방향제이자 탄소중립 체험 키트인 ‘탄소품은고래’입니다. 현재 몇몇 초등학교에서 환경 교구로 활용해 주시고 있어요.

숲담다를 운영하시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사실 숲담다를 설립하고 곧바로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운영 자체도 막막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이 만연할 때였죠. 그때 저희가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비대면 숲체험 ‘홀로 울로 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소방관을 우선 대상으로 했는데, 코로나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만큼 반드시 마음건강을 챙기셔야 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울산 내 여섯 곳의 숲을 홀로 둘러보며 힐링할 수 있도





록 산책 코스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에코백, 마스크, 커피 등이 포함된 숲체험 키트까지 제공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피드백을 받았는데, 참가자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보람찼던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있나요?

2022년 6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숲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천하려 합니다. 먼저 녹색자금사업을 통해 장애인 기관, 노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어요. 또한 경력단절여성과

고령자 등을 우선 채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숲담다의 숲 해설사와 정원관리사 중 70% 정도가 취약계층이에요. 도심의 숲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들은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울산의 정원을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숲을 가까이하면 건강과 행복이 뒤따라와요. 사실 숲 체험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줍니다. 기업에서도 이를 활용한다면 훌륭한 직원복지가 될 수 있겠조.

앞으로도 숲담다는 숲과 정원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정원지도사, 도시숲정원관리사 등 관련 민간자격 취득과정을 통해 교육에도 더 힘을 쏟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고민을 터놓고, 숲에서 마음도 보살피는 '치유상담센터' 설립의 꿈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숲담다의 꿈과 밝은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하고 나아가 테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생협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는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인식해보세요!



#한 단계 #성장하며
함께 한 걸음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가
을
사
색



때때로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한다.
그래서일까.
가을은 세상을 여행하기에도,
내면을 향한 여정을 떠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깊어가는 이 계절,
번잡한 서울의 도심 속에서
조용히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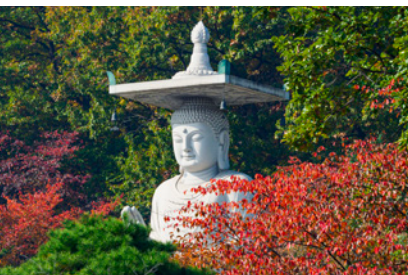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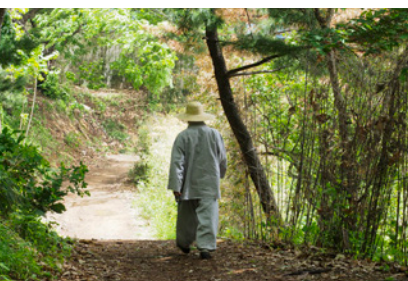


시간이 멎은 듯한 곳,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방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사유가 아닐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관 2층에 마련된 '사유의 방-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으로 가본다. 고요한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두 사람을 볼 수 있다. 바로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우리나라의 국보, 반가사유상(78호, 83호)이다.

원래 한 점씩 번갈아 전시하던 것을 2021년부터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관람객이 오롯이 반가사유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간 디자인으로, 전시실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공간,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종교와 신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한다.





마음을 다하는 걷는 길, 봉은사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런 날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사찰 숲길을 거닐며 고즈넉한 가을의 풍경을 마음속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강남구 삼성동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봉은사는 서울 도시에 있는 가장 큰 사찰로, 12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천년고찰이다. 1562년(명종 17) 문정왕후에 의해 현재 위치로 옮겨진 뒤 '은혜를 받든다'는 뜻의 봉은사로 바꾸었다.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봉은사의 진여문을 지나면 속세의 번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된다. 특히 봉은사의 외곽을 따라 조성된 1.2km 길이의 명상길은 인근 직장인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힐링 명소다. 푸근한 가을의 향기,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 가끔 드러나는 봉은사의 전각과 숲 너머로 보이는 고층빌딩까지... 잠시나마 바쁜 일상의 심표가 되는 순간이다. 높이 23m로 국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미륵대불 또한 봉은사에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완벽한 가을을 만나는 곳, 경복궁 경회루

서울은 무엇이든지 빠르게 변화하는 듯하지만, 도시 곳곳에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품고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도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명소이자 가을이 오면 그저 한가롭게 거닐고 싶은 곳이 바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다.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이들이 경회루를 떠올릴 것이다. 경회루는 경복궁 근정전 서쪽에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의 2층 목조 누각으로, 왕실의 안녕을 위한 연회를 열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했다. 조선의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로,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장엄하면서도 수려한 모습이 돋보인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늘이 교감하는 작은 우주, 경회루에서 잠시 사색에 빠져보면 어떨까. 특히, 오는 10월 29일까지는 경복궁 야간관람이 열려 어둠이 깔린 서울 도심에서 경복궁의 정취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둘러보면 좋은 동네방네

서울의 단풍 명소

하늘공원



(사진 : 공원사진사 이애웅)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하늘공원은 쓰레기매립장을 복원해 만든 생태환경공원이다. 늦가을이면 은빛 억새가 장관을 이뤄 서울의 대표적인 억새 명소로 꼽힌다. 하늘정원은 가을 축제의 주요 무대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2023 서울정원박람회'가, 14일부터 20일까지 '2023 서울억새축제'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낙산공원



산 모양이 마치 낙타의 등을 닮았다고 해서 낙산이라고 불리는 공원이다. 높이가 야트막한 데다 구간 거리가 2.1km라 걷기에 적당하다. 옛 모습대로 복원한 성곽을 따라 역사 탐방로가 이어져 있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특히 일품이다. 서울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계절이면 성곽을 따라 물든 가을 빛을 즐기러 많은 이들이 찾는다.

📍 서울 종로구 낙산길 41

성균관 명륜당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강당이었던 명륜당은 성균관대 안에 자리해 있다. 이곳에 가면 수령이 400년 된 거대한 은행나무를 만날 수 있는데, 고목에서 떨어진 노란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풍경마저 아름다운 곳이다. 담장 밖에서 성균관 명륜당 기와지붕의 곡선과 은행나무를 함께 사진에 담는 것을 추천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1

MZ세대의 놀이터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핫플레이스'. 최근 MZ세대에게
가장 핫한 놀이터인 '팝업스토어'는 어떤 공간일까?
또 넘쳐나는 광고와 홍보의 홍수 속
'진짜' 핫플레이스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MZ세대에게 그 답을 배워본다.



바로 지금, 팝업스토어 전성시대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경험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팝업스토어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팝업스토어의 성지 서울 성수동과 압구정로데오거리는 MZ세대의 방문이 연일 끊이지 않고, 더현대서울에는 다음 해까지 공간 예약이 밀려있을 정도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팝업스토어는 국내의 경우 2009년 무렵 패션, 뷰티, 식품, IT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하락 현상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엔데믹과 함께 그 인기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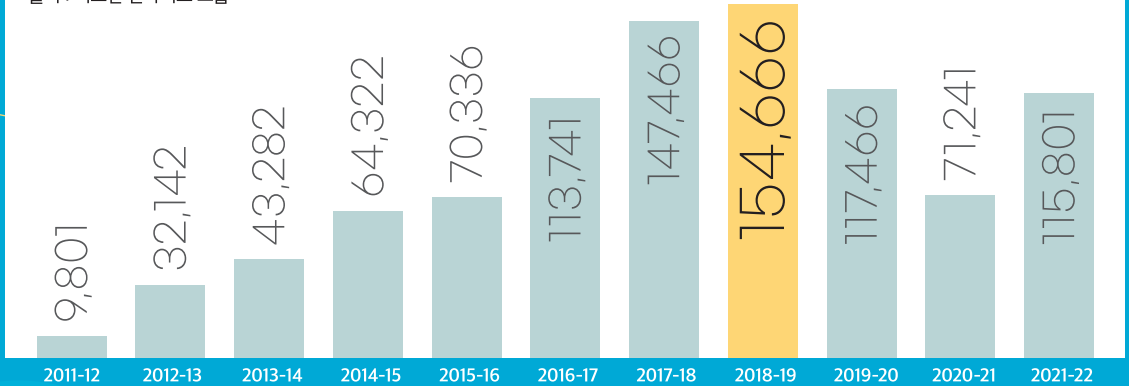
오늘날의 팝업스토어는 초기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는 장이었던 이전과 달리 요즘 팝업스토어에서는 브랜드의 주력제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거나, 심지어는 어떤 브랜드의 스토어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2월 오픈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다. 시몬스는 침대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식료품점 컨셉의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라는 지향 가치 아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시킨 것으로, 최신 팝업스토어 트렌드의 대표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팝업스토어' 키워드 언급량 추이

단위: 건

출처: 이노션 인사이트 그룹



'나'를 찾기 위한 이정표 핫플레이스



MZ세대가 시간과 공을 들여 핫플레이스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어느 핫플레이스를 방문했는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고급 식당과 명품 매장에 있는 자기 모습을 SNS에 올려 고급스러운 페르소나를 형성하기도 하고, 힙한 클럽이나 스트리트웨어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트렌디한 페르소나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마음껏 표현하며, 남들과 다른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들의 성향이 핫플레이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면 찐핫플(진짜 핫플레이스)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이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 데이트 코스를 검색했다면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팔로우하는 지인들의 인증 사진, 해시태그 검색을 활용한다.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 진짜 핫한 팝업스토어와 맛집을 찾고 싶다면 MZ세대의 방식을 이용해 보자. 그렇게 핫플레이스에서 경험한 트렌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업무도 소통도 한층 유연해진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MZ세대의 '찐핫플' 탐색법

방법 1 소셜미디어의 지도 기능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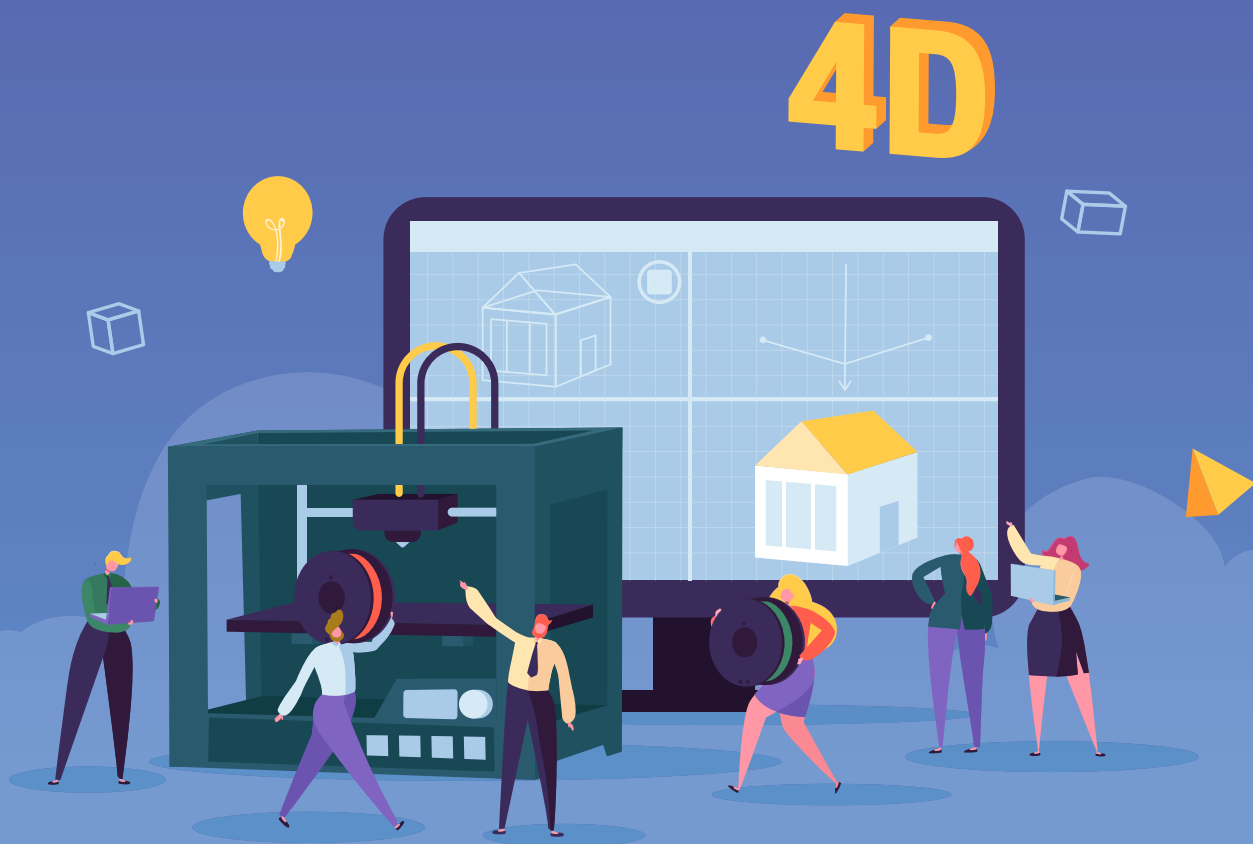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지도 검색', 틱톡 '근처(Nearby)'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신뢰도 높은 리뷰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한 지도 기능을 활용한다.

방법 2 핫플레이스 소개 계정과 앱 둘러보기

맛집 지도 앱 '푸딩코', 부산 핫플 소개 앱 '고메부산' 등 핫플레이스 공간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앱을 통해 확인한다.

사물을 넘어 변화를 찍어낸다 4D 프린팅

최근 4D 프린팅이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3D 프린팅에서 4D 프린팅으로 진화하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3D 프린팅 #4D 프린팅 #자가변형 #맞춤형 기술 #자가치유 #물류비용 절감

세상이 주목한 기술, 3D 프린팅

#3D 프린팅

‘3D 프린팅(3D Printing)’은 특정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3차원의 입체 형상 제품을 만드는 제조 방식을 가리킨다. 적층 가공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자유로운 설계 방식과 저렴한 생산비용,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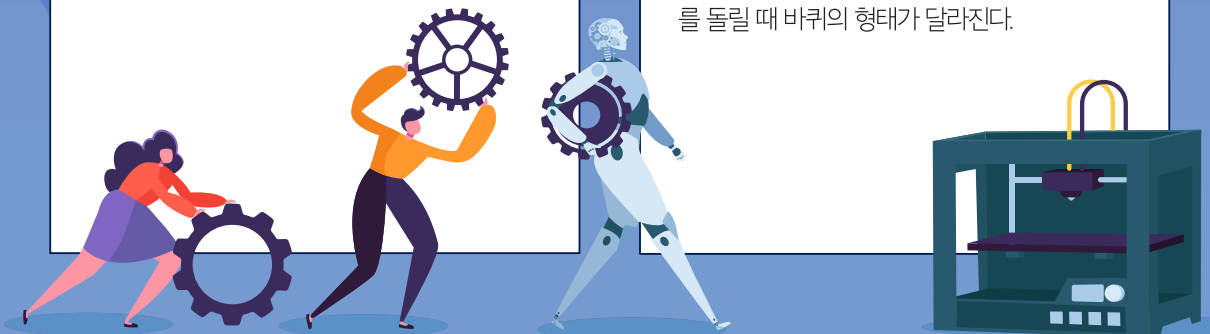
3D 프린팅은 우주항공, 에너지, 교육, 건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며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 한 예로, 지난 3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3D 프린팅을 활용해 제작한 세계 최초의 로켓 ‘테란 1’을 발사했다. 엔진을 포함해 로켓 전체 질량의 85%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했는데,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비록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3D 프린팅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D 프린팅에 자가변형을 입히다

#4D 프린팅 #자가변형

기술의 발달로 이제 3D 프린팅을 넘어 4D 프린팅의 시대가 다가왔다. 한 차원 더 진화된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4D 프린팅은 3D 프린팅한 물체가 자가변형을 하여 사용자가 바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4D 프린팅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출력하려면 외부환경 요인에 따라 모양이 변하거나 스스로 조립되는 스마트 소재가 필요한데,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할지는 엔지니어가 미리 스마트 재료에 프로그래밍한다. 4D 프린팅 기술의 핵심은 신개념의 스마트 소재와 변화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설계 기술, 스마트 소재를 프린트할 수 있는 고기능성 3D 프린터 및 공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4D 프린팅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제품은 독일의 자동차회사 BMW의 콘셉트카 ‘비전 넥스트 100(Vision Next 100)’이다. 운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디자인이 변화하도록 설계됐는데, 예를 들어 험한 도로를 달리거나 급회전으로 운전대를 돌릴 때 바퀴의 형태가 달라진다.



일상 속으로 들어온 4D 프린팅

#맞춤형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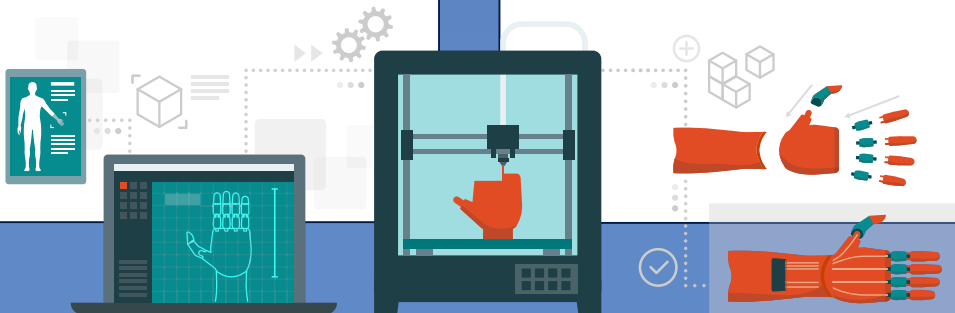
4D 프린팅의 활약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단연 의료다. 4D 프린팅을 활용하면 신체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인체 보형물이나 맞춤형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진은 4D 프린팅으로 제작한 부목을 생후 5개월 아기의 목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바 있다. 부목은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커지고 이후엔 물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4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MIT 어셈블리랩에서 선보인 신발은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꾼다. 달릴 때는 신발이 알아서 수축하고 달리기를 멈추면 신발이 늘어나 착용자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디다스에서도 미국 실리콘밸리 3D 프린터 기업인 카본과 함께 4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알파엣지 4D'를 출시하기도 했다.

4D 프린팅이 만들어갈 미래

#자가치유 #물류비용 절감

그렇다면 4D 프린팅이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는 자가치유되는 혁신적인 제품이 세상에 등장할 전망이다. 부품이 손상되거나 고장 나는 등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기면 4D 프린팅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환경에 노출될 경우 스스로 예방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또한, 얇은 시트 형태로 제품을 제작한 다음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형태가 변화하도록 설계한다면 운송 및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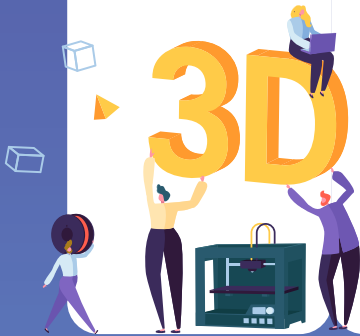
이렇듯 4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4D 프린팅 기술의 상용화는 전통적인 제조 기술을 보완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우리 삶을 다양하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D 프린팅, 이런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3D 프린팅 디자이너

3D Printing
Designer



무슨 일을 하나요?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실제 물체로 출력하는 프로세스를 담당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새로운 시도를 즐긴다!
- 자료를 분석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 기술의 작동원리에 호기심이 많다!

도움이 될 자격 Tip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으로, 2021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진출분야

의료, 패션, 제조, 교육산업 등

재료공학 기술자

Material
Scientist



무슨 일을 하나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재료를 가공처리하여 제조하는 일련의 제조공정을 연구·개발하고 기술을 지휘·감독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살핀다!
- 기계를 다루는 것이 좋다!
- 절차나 단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도움이 될 자격 Tip

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금속재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금속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분석, 조직검사, 열처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진출분야

엔지니어링컨설팅회사, 제조업체, 연구소 및 교육기관 등



성공을 위한 기록법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게 해줄 중요한 습관, '기록'. 어떤 게 쓸데없는 메모이고, 어떤 메모 습관이 나만의 무기가 되어줄까?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를 만나 그 답을 알아본다.



Check list

잘못된 메모 기록 3가지

✓ 많이 쓴다

많이 쓰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쉽다.

✓ 생각 없이 쓴다

무작정 베끼듯 쓰는 메모는 시간만 많이 걸릴 뿐 내 것이 되지 않는다.

✓ 메모한 것을 다시 보지 않는다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그 메모는 가치가 없다.



메모에도 정답과 오답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대부분은 머릿속에 스치듯 거쳐 갈 뿐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경험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록'이다. 하지만 기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기록이 있고, 진짜 무기가 되어주는 기록도 있다. 회의록을 쓰는 방식으로든 내가 올바른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회의 때 언급되는 모든 말을 속기사처럼 완벽하게 작성하는 사람과, 우선 경청하고 이해한 후 핵심 의안 또는 키워드만 몇 개로 요약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당연히 후자다. 무작정 많이 쓰는 것은 잘못된 기록법 중 하나다.

미래의 핵심 역량, 기록

무기가 되어주는 기록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지식의 내재화와 명시화다. 먼저 지식을 내재화한다는 것은 그저 표면적 정보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이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지식의 명시화란 그렇게 내재화한 정보를 글쓰기, 말하기 등으로 표출하는 것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지식을 뇌에 완전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챗GPT의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에도 기록의 중요성은 유효하다. 본인 스스로 지식을 갖춰야 양질의 질문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질문이 이뤄져야 인공지능 역시 훌륭한 답을 내놓는다. 주어지는 정보를 내재화하고 제대로 명시화할 수 있는 '기록형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필요한 지금, 무기가 되는 기록법을 익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무기가 되는 기록법 연습해보기

- ☒ **일상 기록** 일상에서 했던 모든 행위를 한 줄씩, 리스트 형태로 남긴다. 감각, 심상을 병기해도 좋다.

일상 기록 예시

7시 기상 및 체조

8시 출근 : 출근길에 본 단풍이 아름다웠다.

- ☒ **플래닝 기록** 오전, 오후, 저녁에 해야 할 일을 각기 쓴다. 시간대별 한두 가지씩 쓰되, 하루에 최대 다섯 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플래닝 시간 관리 Tip

오전 - 집중해야 하는 일이나 창의적인 일 한두 가지를 추천한다.

오후 - 단순 서류작업 등 쉽고 반복적인 일 한 가지 정도를 추천한다.

저녁 - 스스로 돌보고 성장시키는 활동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한다.

- ☒ **구상 기록** 행동하기 전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본다. 계획을 완성도 있게,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구상 기록 방법

목적(간략히 기술) ▶ 방법(핵심 성공 요인), 주의점 등을 메모 ▶ 과정-프로세스를 설정 ▶ 아웃풋-결과에 대한 예측 메모

- ☒ **지식(독서) 기록** 책을 읽고 요약하는 기록. 독서 중 메모는 지식을 더 선명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한다.

지식(독서)기록 방법

- 1 **고개 들고 생각하기** - 책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메모하며 습득하기
- 2 **키워드 요약** - 40분 정도를 읽고,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키워드로 요약해 보기
- 3 **독서카드로 재정리** - 앞서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독서 카드로 정리해 보기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홍보미디어실(052-714-8196)로 문의

HRD NEWS

2023 October vol. 328

01

HRD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 개최



9월 4일 공단은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4년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을 개최했다. 오는 대회는 2024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며, 약 75개 회원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한다. 그중 우선 입소하는 38개 직종의 선수들은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삼성전자·삼성전기(수원), 삼성중공업(거제), HD현대중공업(울산) 훈련장 등을 오가며 훈련에 전념할 예정이다. 디지털건축, 적층제조, 산업4.0, 로봇시스템통합 등 12개 직종은 연말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무리하고 훈련에 합류한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남은 강화훈련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기능 강국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2

HRD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9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공단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달희 경북지역인자위 위원장 등 17개 시도 인자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기업·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지역 인력·훈련 수요조사 분석과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내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조정과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지역인자위가 최우수 지역인자위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북, 강원도도 또 다른 우수 지역인자위로 선정되었으며, 충북, 경남, 부산은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로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03

HRD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9월 5일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라는 주제로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직업 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6개 분야 92명을 선정하여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고, 새롭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6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지난 7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은 (주)명장홍종훈 대표이사인 홍종훈, 철탄산업훈장은 엠티스 백승학 소장, 석탄산업훈장은 법일정밀 서정석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04

HRD

2022 국제기능올림픽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비 제막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9월 20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수지도위원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어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 및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숙련기술 장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편, 정부포상 수여식에 앞서 올해 제정된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을 축하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광장에서 숙련기술인단체와 미래 숙련기술 꿈나무인 국가대표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05

HRD

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제14회 ‘Best of CHAMP Day’ 개최



공단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의 ‘Best of CHAMP Day’를 개최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를 통해 컨소시엄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22년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기관·개인) 시상식 ▲컨소시엄 사업의 유형 통합(2024년 예정) 관련 안내 ▲공동훈련센터 의견 청취로 구성됐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다른 기업들과 상생하려는 기관들의 활동과 노력이 돋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산업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기간
10월 30일(월)까지

올해 꼭 배우고 싶은 것, 또는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HRD KOREA」 이번 호 테마인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 상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vol.328 HRDKore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만드는 HRD Korea! 사업 참여 스토리 공모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사업에 참여 경험 이야기 등을 사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련 참여 스토리, 국가기술자격 취득 스토리 등...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 분량 A4용지 1장 내외(글자수 약 2천자)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응모 기한 10월 30일(월)까지





HiRDKorea

2023년 9월호
당첨자

—
2023년 9월호 의견 일부를
요약해 전합니다.



손성섭 | 박성주 | 박진아 | 최영수 | 조석현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함께 한걸음의 '강원도 정선' 편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아리랑기차, 아리랑시장, 아우라지, 화암동굴 등 멀어서 가보기 힘든 강원도 정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성섭

● 퇴직 3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직장인을 노리는 증후군 주의보!'를 읽으며 인정받지 못할까 봐 했던 염려, 일에 매달린 시간이 머리를 스치며 다양한 감정이 겹쳤습니다. 꼭 나를 위한 글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주

● 직장인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항상 고민합니다. 직업능력의 달 행사를 보니 인적자원과 능력개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기회네요. 주변에 널리 홍보할게요.

박진아

● 퇴직 후 장애인들이 제빵기술을 배우는 현장에서 무료 도우미로 여러 일들을 도우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식품 관련 안전자격증이나 제빵기술을 취득해 보고 싶습니다.

최영수

●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사 정보를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나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소식이 반가웠으며, 꼭 참가 등록을 하여 AI시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해안을 높여야겠습니다.

조석현



HiRDKorea

이번호는 어떠셨나요?

QR코드, 이메일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당첨자 안내를 위해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 제38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차 합격자 발표 · 제31회 청소년지도사 1차 합격예정자 발표	5	6	7 · 기사 제3회 실기시험(10.7-10.20) · 제9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시험 ·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8	9	10 ·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10.10-10.13)	11 ·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기술사 제13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관광통역안내사 1차 합격자 발표	12 ·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10.12-10.13)	13	14
15	16 ·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10.16-10.19) · 제24회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원서접수(10.16-10.20) ·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 원서접수(10.16-10.20)	17 ·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 원서접수(10.17-10.20)	18 · 제34회 감정평가사 2차 합격자 발표 · 제40회 관세사 2차 합격자 발표	19	20	21
22	23	24	25 · 제60회 변리사 2차 합격자 발표 ·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차 합격자 발표 · 제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합격자 발표	26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10.26-10.27)	27	28 ·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
29	30	31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div>미리</div> <div>알아보는</div> <div>11월 일정</div>	<div>◎ 국가기술자격</div> <div>· 기사 제3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11.1)</div> <div>· 기사 제4회 실기시험(11.4-11.17)</div> <div>·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11.11-11.21)</div> <div>◎ 국가전문자격</div> <div>· 제31회 청소년지도사 1차 최종 합격자 발표(11.1)</div> <div>· 제25회 경비지도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11.2-11.3)</div> <div>·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차 시험(11.4)</div> <div>· 제31회 청소년지도사 2차 원서접수(11.6-11.10)</div> <div>·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 시험(11.11-11.12)</div> <div>· 제25회 경비지도사 1, 2차 시험(11.11)</div> <div>· 제22회 청소년상담사 2차 원서접수(11.13-11.17)</div> <div>· 제60회 세무사 2차 합격자 발표(11.15)</div> <div>· 제9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합격자 발표(11.15)</div> <div>· 기사 제3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11.15)</div> <div>·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11.18-12.1)</div> <div>· 기사 제4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11.29)</div> <div>· 관광통역안내사 2차 시험(11.18-11.19)</div> <div>·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발표(11.22)</div> <div>· 제9회 손해평가사 2차 합격자 발표(11.22)</div> <div>· 제24회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시험(11.25)</div> <div>· 제31회 청소년지도사 2차 시험(11.27-12.2)</div> <div>·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합격자 발표(11.29)</div> <div>·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합격자 발표(11.29)</div> <div>·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 합격자 발표(11.29)</div>
	<div>* 부득이한 경우 시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div> <div>*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div>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023 Chungcheongnamdo The 58th National Skills Competition

2023. **10.14.**(토) - **10.20.**(금) | 7일간

백제의 숨결 속,
당신의 기술 **충분히** 남다르다



제1경기장 천안공업고등학교
제2경기장 천안상업고등학교
제3경기장 천안제일고등학교

제4경기장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제5경기장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제6경기장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

주최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주관 world skills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후원 SAMSUNG IBK기업은행 롯데지주 CJ푸드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YUNDAI INNOBIZ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FESTOOL daedong LS Mtron TYM KGC NOROO 노루세인트 3M LOIS LSELECTRIC 신기술협회 (주)한국유평

이화인 Adobe 월드엘 약손명기 AUTODESK L.J CORPORATION unity